「죽은 사람들」 속 젊은 예술가의 초상: 조이스의 예술에 대한 메타적 시선

강 서 정

차 례

Ⅰ. 서론
Ⅱ. 현실 은폐로서의 파티
Ⅲ. 여성의 예술적 상징화
Ⅳ. 서술 방식에서 나타나는 조이스의 예술관
Ⅴ. 결론

Ⅰ. 서론

문학은 사적, 공적인 기억을 구성하는 직물과 같다. 그리고 그 구성체에는 필연적으로 당대의 가치, 사회적, 정치적 상황 등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독자가 텍스트를 읽어내는 데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구성된 기억" 속에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억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이스의 「죽은 사람들」은 풍부한 음식이 오가는 북적이는 파티를 배경으로 삼지만, 그 안에 많은 갈등과 분열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주인공 가브리엘(Gabriel Conroy)은 환대와 관대함을 강조하면서 릴리(Lily), 아이버스(Miss Ivors), 아내와의 갈등을 덮으려하는데, 가브리엘이 그들과 관련하여 구성하는 기억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억제하려는 현실을 더 극명히 보여준다.

페코라(Vincent P. Pecora)가 지적하듯이 가브리엘은 여성들에 대해 관대함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작품의 도처에서 나타낸다(239). 이렇게 자신을 미화하면서 그는 여성들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창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는 여성등장인물, 특히 그레타

(Gretta Conroy)와의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혹은 그레타의 모습을 그림으로 축소함으로써 아내를 그의 문학 속 상징으로 삼는다. 또한 퓨어리(Michael Furey)와 관련한 아내의 기억을 듣고 나서 자신의 현실 인식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 되지만 그에 대해 다시 관대함을 드러내어 자신의 모습을 미화하기도 한다. 노리스(Margot Norris)의 말처럼 가브리엘의 여성에 대한 관점은 그의 예술관과 깊은 연관이 있고(482), 이와 같이 가브리엘이 여성들을 어떻게 재현하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구성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월감을 되찾는지를 읽어내는 것은 가브리엘의 문학에 대한 관점, 그러한 가브리엘을 창조한 조이스의 관점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죽은 사람들」을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만, 여성과 파티를 가브리엘의 예술적 대상으로 보고 그것이 결렬되는 과정을 예술가의 자의식과 관련하여 기술한 논문은 드물다. 흔히 작품 후반부 가브리엘의 에피퍼니를 주인공의 "자아인식, 여성성의 인식, 타자성의 인식, 죽음의 인식, 아일랜드성의 인식, 아일랜드의 현실인식"과 관련하여 설명하지만(김상효 63), 본 연구는 그것이 상처받은 예술가의 자의식을 보상받기 위한 한 기제임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조이스의 중편 「죽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파티와 여성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주인공 가브리엘의 문학관과 작가 조이스의 문학관을 대비할 것이다. 특히 이들의 문학관이 서술기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Ⅱ. 현실 은폐로서의 파티

> "나도 하느님의 영광에 대해 다 알고 있어, 메리 제인. 하지만 나는 평생을 몸담은 성당 합창단에서 교황이 여성들을 몰아내고 작은 남자아이들로 채우는 것이 전혀 영광스러울 것이 없다 생각한단 말이지. 만일 교황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겠지. 그렇지만 메리 제인, 그것은 정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고. [...]

> "게다가 케이트 이모," 메리 제인이 말했다. "우리 모두 정말 배가 고파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모두 싸우기 좋아하게 되죠." (*D* 169)

「죽은 사람들」에서 파티는 현재의 첨예한 갈등들을 은폐하고 의식적으로 기억을 미화하는 인위적인 기억 구성 과정이다. 파티의 풍성한 음식들은 아일랜드 대기근의 기억을 억압하며, 케이트(Kate Morkan)와 줄리아(Julia Morkan) 자매의 환대는 현재의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덮는다. 예를 들어 아이버스와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은 모칸 자매의 환대로 덮어지고, 케이트의 가톨릭에 대한 불만은 파티의 음식으로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억압된다.

작품의 서술은 등장인물의 심리를 담고 있으면서 억압되어 있는 현실의 갈등을 인물간의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낸다. 예를 들어 작품의 초반부에서 파티가 언제나 성공적이었다는 언급은 모칸 자매가 남들이 파티에 대해 평가했으면 하는 생각을 담고 있다.

> 모칸 자매가 매년 여는 무도회는 언제나 호황이었다. [...] 한 번도 시시한 적이 없었다. 기억할 수 있는 한 여러 해 동안 파티는 화려한 스타일로 개시되었다. (*D* 152)

그러나 이와 대비되게 작품 도처에는 파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화나 움직임이 자주 포착된다.

> 음악을 따라가는 유일한 사람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메리 제인 자신뿐이었다. 가장 열성적인 박수는 출입구에 있는 네 명의 젊은 남자들에게서 나왔는데, 그들은 피아노 연주가 시작될 무렵 식당에 갔다가 연주가 끝날 때쯤 되돌아온 사람들이었다. (*D* 161)

이렇듯 등장인물의 심리와 그들 간의 대화, 실제 상황 묘사 등은 현실과 미화된 파티 사이에 미묘한 괴리를 낳고 이는 등장인물들이 파티에 대해 갖는 태

도를 매우 사실적이며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식사 연설에서 가브리엘은 모든 것이 불안정한 세태 속에서 아일랜드의 전통적 가치인 환대와 관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의 슬픈 기억에 머물지 않고 미의 세 여신의 (모칸 자매와 메리 제인) 환대 안에서 동료애로 뭉치자고 제안한다. 언뜻 보면 평범한 연설이지만 이 연설 속에서도 갈등의 씨앗이 교묘하게 숨어 있다. 가브리엘은 "저는 파리스(Paris)의 역할을 담당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파리스가 헤라(Hera), 아테나(Athena), 아프로디테(Aphrodite)의 세 여신 중 아프로디테를 선택하여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된 점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아름다움 안에는 폭력의 그늘이 머물고, 반대로 폭력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에서 발단된다. 이는 판단을 유보하고 아름다움 안에 단지 머물 때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온갖 갈등의 온상인 아일랜드의 당대 문제를 갈등 관계 보다 미적인 조화 안에서 풀어보자는 제안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문학(예술)은 정치를 초월한다"는 가브리엘의 가치관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자신의 예술관을 배반하고 여성의 미에 대해 "선택"하고 있다. 가브리엘에게 여성은 결혼, 환대, 관용, 아름다움, 풍부한 정서를 배제하고는 떠올릴 수 없는 존재이다. 더 나아가 그는 이상적인 여성성과 그에 배치되는 측면을 구분하여 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성을 주변의 여성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미는 규정하는 사람의 정치적 식견에 따라 다르게 조명되고 그러한 정치적 식견을 갖춘 사람은 주로 남성이다. 가부장적인 가치로 물든 가브리엘은 사실상 미를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파리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눈은 인위적 구성물인 파티와 관련하여 억제된 사회, 정치적 상황을 드러내는 주요 상징물이다. 가브리엘은 유난히 눈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특히 모칸 자매의 집에 도착하여 그가 눈을 떨어내는 장면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밖의 차가운 세계와 대조되게 집 안에서 벌어지는 파티는 아일랜드 민족의 중요한 덕목인 관대함과 환대를 드러내는 구성물이다. 의식적 구성물인 파티와 대비되는 눈은 가브리엘이 떠올리기 싫은 현실로서 은폐되고 잠재된 그의 무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가브리엘은 끊임없이 그의 의식 안에서 파티 및 파티의 구성원인, 릴리와 아이버스, 모칸 자매, 그레타를 창조하는데, 그 창

조 과정에서 잠재된 진실은 흔히 외면당한다. 가브리엘은 그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대로 특정한 이미지에 맞추어 파티 및 주변 여성들을 정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 가브리엘의 따뜻한 떨리는 손가락이 창유리를 두들겼다. 바깥은 얼마나 시원할까? 우선은 강가를 따라 그리고 나선 공원을 가로질러 혼자 밖을 걸어 다니면 얼마나 상쾌할까! 눈이 나무 가지 위에 쌓여 있을 테고 웰링턴 기념탑 꼭대기는 빛나는 눈 모자를 쓰고 있겠지. 저녁 만찬 식탁에 있기보다 거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쾌하련만. (*D* 166-67)

그러나 위의 인용문은 가브리엘이 실제로 파티에 대해 느끼는 권태와 피로를 보여줌으로써 파티를 미화하는 그의 진술을 전복하고 있다. 가브리엘은 파티에 대한 그의 미화가 현실을 억압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그 이상화의 과정에 지쳐 권태까지 느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눈은 그가 억압하는 모든 것, 잠재의식, 죽음, 억제된 현실 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회피와 이끌림의 대상인 눈을 묘사하는 부분은 식사 연설 직전에 떠오르는 가브리엘의 생각에서도 나타난다.

> 사람들은 아마도 환한 창문을 바라보고 왈츠 음악을 들으면서 밖의 안벽에 기대 눈 속에 서있는 것 같았다. 거기 공기는 신선했다. 멀리서 나무들이 눈에 쌓인 공원이 펼쳐져 있었다. 웰링턴 기념탑은 15 에이커의 흰 들판 너머 서쪽으로 번쩍이는 눈 모자를 쓰고 있었다. (*D* 176)

밖은 안보다 공기가 신선하고, 눈은 새하얗게 세상을 덮는다. 밖의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인위적인 파티 장소와 비교되며 창문 하나를 경계로 잠재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구별한다. 작품 속에서 눈이 내리는 밖은 따뜻한 파티 장소와 대조되는데, 좁은 파티 장소를 둘러싸는 넓은 자연은 미화된 파티가 얼마나 궁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더불어 영국 제국주의를 드러

내는 웰링턴 기념탑이 가브리엘의 의식 속에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는 점은 가브리엘이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역사적 질곡을 망각하려 하지만 식민주의의 기억을 억제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Ⅲ. 여성의 예술적 상징화

조이스의 작품에서 여성은 흔히 예술적 소명의 현현이나 창조의 공간으로 등장하곤 한다. 일례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학(crane)과 같기도 하고 비둘기 같기도 한 소녀의 모습은 이러한 소명의 심미적, 이상적 현현이면서 예술가 스티븐(Stephen Dedalus)이 추구해야 할 세계이기도 하다.

「죽은 사람들」의 가브리엘 역시 여성에 대한 규정, 상징화를 통해 예술가로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 박윤기는 그의 논문에서 가브리엘이 여성과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질서가 제국주의 특권의식에서 발현되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남성적 질서가 작품 속 여성들에 의해 와해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15). 특히 그는 「죽은 사람들」의 여성들이 가브리엘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의 가브리엘은 릴리, 아이버스, 그레타에 의해 무장 해제되고 있으며, 아내의 모습을 이상화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굴절시키고 있다.

가브리엘이 파티에서 처음 만나 말을 건 사람은 릴리이다. 가브리엘은 릴리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타진하고 릴리는 가브리엘의 말에 퉁명스럽게 대응한다. 그는 권위를 되찾기 위해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그 자리를 빠져나온다. 가브리엘에게 릴리는 하층민으로서 결혼만이 삶의 전환점이 되리라 믿어진다. 그녀는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이 낮아 자아 성취보다는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이 더 수월하다. 그러나 릴리는 그러한 가브리엘의 생각에 대해 공격적인 말대꾸로 가브리엘의 자의식에 상채기를 낸다. 그녀는 가브리엘의 우월감에 대해 퉁명스러운 말대답으로 대응하고 가브리엘은 그녀의 "버릇없는" 말대답에 돈을 주면서 관대함을 보이려 한다. 릴리는 가브리엘의 정형화를 깨고 언어적 규정을 통해 ("palaver") 그를 공격한다.

두 번째로 가브리엘을 당황시킨 여성은 미스 아이버스이다.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브리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아이버스는 릴리와 달리 가브리엘을 "친영파"라는 언어로 먼저 공격한다.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제대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단지 문학이 예술을 초월한다는 자신의 믿음만을 불완전하게 표현할 뿐이다. 아이버스의 공격에 대해 합당하게 대응하지 못한 가브리엘은 저녁 식사 연설에서 아이버스를 "관대함이 없는 새로운 세대"로 규정한다. 이러한 언어적 규정으로 가브리엘은 궁색하나마 아이버스에 의해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려 한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어야할 아이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다.

상대적으로 친밀도가 낮은 릴리나 미스 아이버스의 경우와 달리 모칸 자매나 그레타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보다 심미적이며 예술적인 표현으로 이들을 재창조한다. 언어적 규정화로 상처 받은 가브리엘에게 모칸 자매나 그레타는 일종의 이미지로 인식된다. 저녁 연설에서 가브리엘은 모칸 자매와 메리 제인(Mary Jane)을 미의 세 여신(Three Graces)으로 묘사하는데, "세 여신"은 루벤스(Rubens)와 라파엘로(Raphael)를 포함한 수많은 예술가에 의해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조각된 인기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모칸 자매는 가브리엘에게 아일랜드의 환대를 체화한 전통의 계승자로 인식된다. 그녀들은 아이버스 양에 비해 "무식할" 수는 있지만, 전통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로 표현된다. 파티는 앞서 밝혔듯 현실의 갈등을 덮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예술 행위이다. 가브리엘은 아일랜드의 "환대"를 그가 마주한 세상에서 갈등을 조율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모칸 자매는 아일랜드가 지켜야 할 덕목들을 파티라는 행위를 통해 지속시키고 있다. 그는 이모들에게 우월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파티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가브리엘이 아니라 그의 "무식한" 이모들이다. 그러나 주지했듯이 파티는 현실을 미화하고 전통을 찬양하기 위한 의식적인 기억의 구성물이다. 또한 모칸 자매는 죽음을 앞둔 사라져가는 노인일 뿐이다.

가브리엘의 자존감에 가장 큰 상처를 낸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 그레타이다. 가브리엘은 그레타가 음악을 들으며 멍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림 속 인물로 그레타를 상징화한다. 그 낯선 모습은 가브리엘의 성적인 충동을 자극하고, 과거 그레타와 함께 한 시간들을 회상하게 한다. 그레타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브리엘의 선택적인 기억 구성 과정이며, 그런 의미에서 가브리엘은 그레타를 자신이 원하고 이해하는 식으로 창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는 노래하는 목소리들을 들으려 노력하면서 어두운 홀에서 그의 아내를 주시하며 가만히 서있었다. 마치 무언가의 상징이라도 된 듯이 그녀의 태도에는 품위와 신비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어렴풋이 들리는 음악을 듣고 있는 그늘 속 계단 위의 여성이 누구인가를 자문하였다. 그가 화가라면 그러한 태도를 지닌 그녀를 그림으로 그릴 것이다. 그녀의 푸른 색 펠트 모자는 어둠 속에서 청동색의 머리카락을 강조 할 것이며, 치마의 어두운 패널은 밝은 색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D* 182)

가브리엘은 아내의 "품위"와 "신비"를 그림 속 상징으로 축소한다. 그는 아내의 옷이나 머리카락 색깔, 음영 등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상상하고, 아내를 일종의 상징으로 그려낸다. 이는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의 시 「나의 전처 공작부인」("My Last Duchess")에서 아내를 그림으로 그려 넣고 홀로 "소유하려는" 공작의 모습을 환기시킨다.

가브리엘은 그레타를 남성 예술가의 미적 창조 대상으로 취급하며 외면을 그림으로 묘사하였고, 더 나아가 내면까지 창조하기에 이른다. 그들 부부 공동의 기억을 미화하면서 미적 대상과 일치, 조화되고자 하는 욕망을 예술적 형상 속에 투영한 것이다. 가브리엘은 자신이 기억하는 아내와의 추억들을 되새기며, 아내 역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레타는 릴리, 아이버스처럼 가브리엘을 언어적으로 공격하지 않지만, 퓨어리와 관련된 그녀의 추억을 남편에게 들려줌으로써 여성에 대한 가브리엘의 규정 전체에 균열을 드러낸다. 이로써 가브리엘의 창조 활동이 모두 허구였음을 고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호텔에 도착하여 가브리엘은 아내의 기억 속에 죽은 애인, 퓨어리가 있었고, 특히 그녀가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이 아닌 퓨어리를 떠올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퉁명스럽던 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본다. 거울은 창조의 대상으로

서 여성인 그레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브리엘은 그레타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이 창조한 여성들의 모습 안에서 투영된 스스로의 욕망을 직시한다. 가브리엘은 여성 등장인물들을 자신이 규정하는 방식대로 형상화했고, 그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에는 관대함을 무기삼아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려 하였다. 그는 파티를 통해 화려했던 과거를 추억했고 전통적인 관대함의 전형이 되고 싶어 했다.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규정했던 가브리엘은 그 틀이 산산이 깨어짐을 경험한다. 그리고 눈 오는 창밖을 바라본다.

> 창을 부딪치는 약한 소리에 그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등불에 비스듬히 떨어지는 은색과 암흑의 눈송이들을 졸린 듯 지켜보았다. 그가 서쪽으로 여행을 떠날 때가 왔다. 그래, 신문기사가 맞았다: 온 아일랜드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D* 194)

가브리엘이 "서쪽으로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도, 아내의 전 애인도, 정치적인 혼란도, 민족주의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아일랜드 전역을 덮고 있는 눈은 가브리엘이 겪는 혼란과 고통을 너무 쉽게 은폐해 버린다. 그는 자신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불쾌함과 질투를 눈이 상징하는 포용과 사랑으로 변화시켜 쉽게 상황을 무마시키려 한다. 눈은 그에게 현실을 벗어나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처지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문학적 기제 역할을 한다. 이는 조작 불가능한 미지의 세계를 의식 속에서 변화시키려는 시도로서 가브리엘이 현실을 미화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 방편이 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대상들을 규정 혹은 상징화하고 그 과정에서 우월감을 회복한다. 그러나 그러한 예술적 상징은 상대가 말대답을 하거나, 파티에서 일찍 사라지거나,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음으로 인해 결렬되곤 한다.

Ⅳ. 서술 방식에서 나타나는 조이스의 예술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조이스의 분신인 스티븐은 “국적, 언어, 종교에 대해” “침묵과 추방, 간교함의 무기로써” 대항하겠다고 말한다(208). 조이스는 지배국의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지만 그 언어의 틀을 해체하며, 스스로를 추방자로 여겨 현실에 매몰되지 않은 채 더블린의 모든 측면을 예리하고 대담하게 그려낸다. 그는 자유 간접 화법(free indirect style)을 취하여 지배적인 하나의 담론을 포기하고 “간교하게”주인공의 내적 심리와 외적 상황을 충실히 드러낸다(Pecora 235). 즉, 조이스의 서사적 특징은 더블린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면서, 조이스의 문학관, 작중 인물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핵심적 기제이기도 하다.

조이스는 문학이 정치적 상황을 초월하는지를 아이버스와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묻고 있다(Norris 480). 가브리엘은 문학이 정치를 초월한다(“He wanted to say that literature was above politics.”)고 말하려 하지만, 그의 사고 안에서 그레타를 비롯한 여성들의 억눌린 말대꾸(back answers)는 예술 자체가 정치적 압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적 상황을 재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Norris 501-02). 「죽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술에 대한 메타적 시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중 여성 등장인물들은 가브리엘에 의해 규정되지만 여성들은 그 규정을 무로 돌려놓는다. 이들은 가브리엘에 의해 창조되는 예술 작품이면서 동시에 가브리엘의 예술관을 공격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예술에 대한 메타적 질문을 던지면서 조이스는 가브리엘의 예술관을 폭로한다. 마치 「나의 전처 공작 부인」에서 시인 브라우닝이 화자와 청자를 설정하고 독자들에게 엿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처럼 조이스는 가브리엘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였으면 하는지, 무엇을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무엇을 상징화하는지를 “교활하게” 잘 드러낸다. 조이스는 가브리엘이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우월감을 회복하려하는지, 그의 자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작품에 그대로 노출시킨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도 작가 조이스는 예술가가 현실에서 완전히 일탈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작품의 초반부에서 스티븐은 지리

교과서에 “Stephen Dedalus/ Class of Elements/ Clongowes Wood College/ Sallins/ County Kildare/ Ireland/ Europe/ The World/ The Universe,” 즉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소속된 세계를 점점 넓은 반경으로 적어 놓는다(12). 이것은 스티븐의 사고가 좁은 현실 세계에서 좀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가 곧 자신의 세계를 떠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스티븐은 스스로를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그가 속한 공간과 그 공간의 역사, 시간을 스티븐 디덜러스라는 한 개인을 축으로 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가 현실에 묶여 있다는 것은 그의 사고를 담은 작품 전반이 정치, 종교적 담화로 점철되어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죽은 사람들」에서도 주인공은 파티를 통해 현실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현실의 갈등을 봉합하려하면 할수록 배경이 되는 그 사회적 현실이 더 극명히 부각된다. 그가 계속 떠올리는 웰링턴 기념탑이 그 예가 된다. 가브리엘의 의식은 눈에 덮인 웰링턴 기념관을 뱅글뱅글 돈다. 영국 제국주의를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할수록 현실의 역사, 정치적 상황은 그의 의식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이미지와 그들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하다. 가브리엘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물론 할아버지, 관 속에서 잠을 자는 수도사들에게서 죽음과 삶이 겹쳐지고, 심지어 벽에 걸려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타워에 갇힌 왕자의 그림 역시 죽음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실내와 대비되는 바깥의 눈은 죽음을 상기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제 중의 하나이다. 창을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추위와 온기처럼 죽음의 세계,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은 파티의 순간순간을 잠입한다. 조이스는 이와 같이 주인공들이 기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죽은 자와 산 자 양 극이 서로 통하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조이스가 “양 극단의 체계를 해체하려 함”(to dismantle the binary system itself) (Whelan 67)이 잘 드러난다. 조이스는 세상을 죽음과 삶, 선과 악의 양 극단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 자체를 해체하려 하였다.

작품 내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고 남성 주인공에 의해 창조

되지만, 그 창조가 허구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이스의 서사 방식은 가브리엘의 예술에 대한 자기반성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릴리의 말대꾸나 미스 아이버스의 매도보다도 가브리엘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그의 아내 그레타가 첫 사랑 마이클 퓨어리를 추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자신과 아내와의 사랑, 그 밀착된 경험이 가브리엘의 기억을 차지했다면, 아내 그레타의 기억에는 더 절절한 첫 사랑이 존재해 왔던 것이다. 그레타는 작품 내에서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마지막에 퓨어리에 대한 추억을 말한다. 이렇듯 침묵하던 그레타의 목소리가 공명하는 것은 그레타의 기억과 가브리엘의 기억이 서로 균열을 이루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여성을 상징으로 축소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창조해낸 가브리엘의 창조는 허구임이 드러나고, 가브리엘은 아주 잠깐 동안 그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그는 곧 모든 것을 덮어 버리는 눈처럼 아내의 죽은 애인, 아일랜드 민족주의, 죽음의 세계를 다 포용하는 것 같은 내적 독백을 보여준다.

이 때 작가인 조이스가 그의 주인공 가브리엘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포용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아마도 조이스는 가브리엘의 에피퍼니(Epiphany)를 순간적이며 한계성을 띠는 것으로 그린 듯하다. 가브리엘은 다른 여성 등장인물에 대해 그러하듯 그레타에게도 마치 습관처럼 관대함을 보이고, 자신의 모습을 미화시킨다. 억눌린 감정, 죽음 등을 상징하던 눈을 포용과 관용의 객관적 상관물로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의 대상은 여성들에게서 가브리엘 자신에게로 옮겨지고, 마지막 독백에서 그는 자신이 세상을 변화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표현하려 한다. 그러나 그 모습이 오히려 그의 '현현'을 순간적인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억압했던 기억, 억눌려온 현실이 드러날 때, 그의 일방적인 예술적 형상화가 결렬될 때, 가브리엘은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관대함을 발휘한다. 관대함은 그의 정신적 성숙에 의해서라기보다 상처받은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치는 방어막으로 볼 수 있다. 아일랜드의 미풍양속인 환대를 파티를 통해 보여주듯이 가브리엘 개인은 "아일랜드적인" 관대함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가브리엘은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릴리와 아이버스에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관대한 모습"을 스스로의 초상에서 강조하고자 하였고, 다른 남성을 추억하는 아내 그레

타는 이러한 가브리엘의 표면적 관대함을 이끌어내었다. 상처를 받을수록 관대함으로 무장하는 가브리엘의 내적 보호 기제는 마치 그의 외조부 패트릭 모컨(Patrick Morkan)의 말 조니(Johnny)가 빌리왕(King Billy, 1650-1702)의 동상 주변을 맴돌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복하여 발현되고 있다.

아일랜드에 대한 그의 생각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가브리엘은 찬란했던 과거를 떠올림으로써 현실의 고통과 혼란을 시야에서 가린다. 그는 아일랜드가 계승해야 할 덕목을 갖춘 두 이모를 미화한다. 파티는 현실의 비참함을 아름다운 과거의 기억으로 가리는 일종의 의식이 된다.

조이스는 파티가 벌어지는 내내 주인공 가브리엘의 생각을 기록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파티의 소소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가브리엘의 생각, 실제 파티의 모습, 여성들의 침묵, 그 여성들의 침묵을 메우는 가브리엘의 기억 등, 모든 국면을 작가 조이스는 마치 공중에 떠서 사진을 찍듯이 세밀하게 묘사한다. 이를 위해 조이스는 한 사람의 심리 묘사에 매몰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시선 안에 갇히지도 않는다. 그는 주인공의 심리와 밖의 상황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언어를 활용하나 다의적인 상징을 활용함으로써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가 사용하는 눈의 상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눈은 죽음, 억눌린 현실, 망각, 마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포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이스는 세상에 속하나 그 세상의 소음에 침묵하고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망명한 사람으로 바깥 세상을 그려내며, 여러 사람의 시선에서 교활한 방식으로 진실의 각 국면을 비추어준다.

Ⅴ. 결론

조이스는 주인공 가브리엘이 의식 차원에서 여성과 파티를 창조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그 창조가 허구임을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자신과 여성, 파티에 대해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가브리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가브리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조이스 특유의 서사 방식이 독자들을 한정된 주인공의 시점을 넘어서서 진실과 대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작가가 등장인물의

사고는 물론 그들 간의 대화, 행동 및 에피소드를 함께 제시하기에 독자가 특정 등장인물의 시야에 갇히는 일은 없다.

이렇듯 독자가 글을 읽으며 대면하게 되는 균열은 여성 등장인물들의 침묵 때문에 더 증폭되고 독자 스스로 그 여성들의 "억제된 말대꾸"에 관심을 쏟도록 한다. 여성의 목소리는 주인공 가브리엘의 예술관, 여성관과 맞물리면서 억제되고, 작가 조이스는 여성들의 말대꾸가 억눌리는 상황 자체를 독자들에게 생생히 보여준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억제되는 것은 당대 사회의 여성관, 사회,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며, 작가는 남성 예술가가 구성하는 그 자신의 모습과 작중 여성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이로써 "문학이 정치를 초월한다"는 가브리엘의 말은 전복된다.

언뜻 보면 주인공 가브리엘의 편에 서있는 것 같지만, 작가는 가브리엘과 거리를 두고 그의 말과 행동, 생각을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예술이 정치를 초월한다는 가브리엘의 믿음은 예술과 현실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작가는 이러한 이원론의 경계를 허물고 정치 안에 예술이, 예술 안에 정치가 함께 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순수한 미를 추구하며 갈등을 미화하는 가브리엘의 모습은 그의 에피퍼니가 순간적이며 한계를 지닌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예술 속에 잠재해 있는 정치를 발굴해내면 작품 안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목소리가 살아나고 독자는 그 여성의 목소리를 구성하는 남자 주인공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남자 주인공의 신념과 다른, 작가의 시선을 찾아볼 수 있다. 이로써 조이스는 예술이 정치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 정치를 기반으로 삼고 그 정치를 재생산한다는 점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가브리엘의 예술관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평가에는 침묵하는 작가의 서사 방식 덕분에 억눌린 여성들의 목소리는 더 크게 공명할 수 있다. 남성이 침묵하는 여성들의 내면을 규정하고 이미지화 하려는 시도를 보여줌으로써 조이스는 현실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포장하려는 남성의 허위를 폭로한다. 여성들의 침묵은 그들이 남성들에 의해 어떻게 상징화되는지, 그 상징화와 실체 사이에 어떠한 간극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핵심은 여성과 파티가 아니라 여성과 파티를 인위적으로 미화하는 남성의 순간적인 현실 인식,

즉, 남성 예술가 가브리엘의 자화상이다. 이와 같이 「죽은 사람들」은 여성을 매개로 남성 등장인물 가브리엘의 예술관 및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예술가로서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인 용 문 헌

김상효. 「「죽은 사람들」: 게이브리얼의 정치학」. 『제임스조이스저널』 6.1 (2000): 43-68.

박윤기. 「「죽은 사람들」: 가부장적 권위의 해체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다시 읽기」. 『한국영어영문학』 49.1 (2005): 13-26.

Bonnie, Roos. "James Joyce's 'The Dead' and Bret Harte's Gabriel Conroy: The Nature of the Feast." *The Yale Journal of Criticism* 15.1 (2002): 99-126.

Delany, Paul. "Joyce's Political Development and the Aesthetic of *Dubliners*." *College English* 34.2 (1972): 256-66.

Gandolfo, Anita. "A Portrait of the Artist as Critic: Joyce, Moore, and the Background of 'The Dead'." *English Literature in Transition* 22.4 (1979): 239-50.

Joyce, James. *Dubliners*. New York: Norton, 2006.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Oxford: Oxford UP, 2000.

Norris, Margot. "Stifled Back Answers: The Gender Politics of Art in Joyce's 'The Dead'." *Modern Fiction Studies* 35.3(1989): 479-503.

Pecora, Vincent P. "'The Dead' and the Generosity of the Word." *PMLA* 101.2 (1986): 233-45.

Whelan, Kevin. "The Memories of 'The Dead'." *The Yale Journal of Criticism* 5.1 (2002): 59-97.

Abstract

The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in "The Dead": Joyce's Meta-Perspectives on Art

Kang, Seojung

This study aims to stipulate how Gabriel in "The Dead" by James Joyce creates the images of the party, females, and himself as a young artist. Above all, Gabriel defines the party in his aunts' house as a form of hospitality, and he goes on to artistically describe the women he sees at the party. For example, he regards the female hosts as the Three Graces, which are historically main objects of art. In addition, Gabriel makes his wife, Gretta, an abstraction of art and colors her mentality with his own imagination. Although he believes that "literature is above politics," in actuality, the women's silence in the text reveal that literature is part of politics, and it is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 In this way, Joyce shows us what Gabriel thinks, what he says, and what he believes in relation to art. As a young artist, Gabriel is stimulated to mentally create the images of the women surrounding him, and while attacked by them, he tries to arm himself with "generosity," one of the traditional virtues of the Irish people. Gabriel's changing perspectives on snow convey his process of mental growth. Snow, as an artistic symbol, which initially represented subconsciousness, death, or mental suppression, later functions as an objective correlative of generosity, love, and tolerance. However, Gabriel's mental growth is seen as limited and momentary due to his frequent habitual tendency for generosity. Gabriel tries to provide the Irish people with a way to overcome the reality, which

is full of conflicts by means of art. However, his efforts tend to be limited due to his repeated hiding behind the mask of generosity. In this way, Gabriel's consciousness carries Joyce's meta-perspectives on art. Thus, we are able to access Joyce's views on art through this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Key words: artist, party, women, portrait, snow, epiphany
예술가, 파티, 여성, 초상화, 눈, 에피파니

논문접수일: 2012. 10. 17
심사완료일: 2012. 11. 23
게재확정일: 2012. 12. 15

이름: 강서정
소속: 서울대학교
주소: (331-828)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대우 3차 푸르지오 아파트 302동 904호
이메일: sjkang9704@gmail.com